

허임은 누구인가?

관노와 사비 사이에 태어나 조선 제일의 침의가 되다!

허임은 장악원 악사(樂師) 허억봉의 아들로 태어났다.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명민하지 못한 내가 어려서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공들여 어렵듯이나마 의술에 눈을 떴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부모의 병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의원 집에서 일을 해주며 침뜸을 접하고 공부에 열심히 하여 의술을 터득한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광해군을 침뜸으로 치료를 한 뒤 줄 곧 수행하여 충청도 공주와 홍주(홍성) 전라도 삼례 등지를 함께 다니며 백성들을 치료했다. 임진왜란 당시 20대인데 벌써 종 6품의 의학교수가 될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다. 이 때 그는 치종교수(治腫敎授)로서 전국을 다니며 침과 뜸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덜며, 침뜸을 가르쳤다.

일세에 이름이 난 그는 내의원 침의로 천거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선조 때는 어의 허준의 추천으로 선조의 편두통을 침술로 치료하여 일약 당상관(정3품)에 올랐다.



허임의 침술이 뛰어나 선조 때 임금을 치료하고, 당상관까지 올랐으나 생활은 어렵기 짝이 없었다. 광해군이 허임을 마전군수로 임명하면서 “허임은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주가 쓸 만하다. 그리고 그는 어미와 함께 사는데 궁핍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처지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사대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임은 광해군 시절에는 부평부사 남양부사 등 지방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등극한 인조 초기까지 허임은 내의원 침의로 활동했다.

허임은 늘 백성들 가운데 살며 인술을 펼치고자 했다. 장년에는 한 때 나누어 가서 정착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해군의 명령으로 한성으로 불려와 내의원 침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허임은 중년이 지나서야 충청도 공주에 정착했다.

공주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수행하던 중에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그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의 의술을 가진 의원이라 칭송하였다. 침의들은 그를 으뜸으로 추앙했다. 그는 공주에서 평생의 치료 경험을 집대성한 ‘침구경험방’을 간행한다. 그는 서문을 통해 침구경험방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이곳에서 허임은 갖가지 병을 고치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후진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평생의 의술을 정리하여 침구경험방을 집필했다.

허임의 아버지 악사 허억봉 충신의 후손, 장악원 전악으로



허임이 침술이 뛰어나 승진할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 꼬리표가 있었다. ‘관노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1617년 광해군이 허임을 양주목사로 승진시키려 하자 사헌부에서는 “허임의 아버지는 관노이고 어미는 사비이니, 비천한 자 가운데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출생 신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허임가에 대하여 민인백(閔仁伯)은 자신의 문집 태천집(苔泉集)에서 “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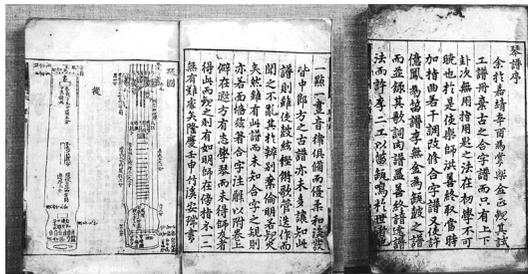
의 아버지는 양양관노(襄陽官奴)였고 그 어미는 재상 김귀영(金貴榮)의 사비였다.”며 허임의 아버지 허억봉(許億鳳)이 우의정 부원군에 추증되고, 어머니인 사비에게도 정경부인에 봉한 사실을 극도로 비난했다.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자신이 하양허씨(許任河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가 비록 관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 사건과 관계 있는 집안이었음이 확인된다. 허임의 9대조는 세종대왕 때 좌의정을 지낸 문경공 허조(許稠). 허조의 아들 허후는 수양대군의 정권 장악에 반대하다 교형을 당했다. 그 허후의 아들 허조(許槁) 또한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에 앞장섰다가 하양허씨 문경공과 가문이 ‘멸문(滅門)의 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허임

의 조상도 관노에 편입되어 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임의 아버지인 허억봉 또한 강원도 양양의 관노였는데 어린 나이에 장악원 악공으로 뽑혀 한성에서 생활했다. 허억봉은 어려서부터 대금에 뛰어났다. 장악원 점정 안상이 ‘금합자보’(琴合字譜)를 만들 때 대금악보인 적보(笛譜)는 허억봉에게 맡겼을 정도로 대금의 권위자였다. 허억봉은 음악 실력을 인정받아 장악원 연주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직위인 전악까지 맡았다.

그는 김귀영가의 여종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허임을 낳았다. 어머니가 여종이면 허임도 당연히 종이 되어야 하나 아버지인 허억봉이 전악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면천되어 허임도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억봉의 대금 악보가 들어 있는 금합자보

기록으로 본 허임의 생애 연표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승정원일기, 책미록 등 참조 (나이는 대략 1570년을 출생년으로 보았을 때로 추산함)

1570년(?) 악사(樂師)인 부친 허억봉(許億鳳)과 김귀영(家)의 사비(私婢)였던 모친 사이에서 출생.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 집에서 일하면서 의술에 눈뜸.

1593년(24세, 선조 26년) 임진왜란 중이던 계사년(癸巳年) 광해군의 서남행시에 수행하여 11월에는 황해도 해주에서, 12월에는 전라도 삼례역(參禮驛)에서 3일 간격으로 광해군에게 침 치료를 시행함.

1595년(26세, 선조 28년) 11/1 침의(鍼醫) 출신의 박춘무가 군수로 있는 전라도 합얼 방문. 허교수(許敎授)라는 호칭으로 불림.

1598년(29세, 선조 31년) 9/22 ‘침의 박춘무와 허임 모두 무단히 출타 중’이라며 침의 허임이라는 호칭이 선조실록에 처음 나타남.

1601년(32세, 선조 34년) 의관 허준 등과 함께 입시(入侍)하여 선조의 침 치료에 참여함.

1602년(33세, 선조 35년) 6/12 고향에 물러가 있음. 침을 잘 놓아 일세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으로 침의 김영국·박인평과 함께 언급됨.

1604년(35세, 선조 37년) 9/23 선조의 갑작스런 편두통으로 야간 진료. 아시힐(阿是穴)에 대한 평소 허임의 견해를 허준이 언급함. 10/23 편두통을 치료한 공으로 포상을 받음. 6품의 직에서 당상(堂上: 通政大夫)으로 전격 승진. 당상관은 지나치다는 여러 신하들의 간쟁(諫諍)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606년(37세, 선조 39년) 4/26·29, 5/2·4·6일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 어의 허준, 조홍남, 이명원 등과 침의 남영, 김영국과 함께 입시(入侍)하여 선조를 침 치료함. 9/14·16·18·20일에도 입시하여 진료함.

1609년(40세, 광해 원년) 10/8~15 새로 즉위한 광해군에게 재능과 공로를 인정받아 마전군수(麻田郡守)에 임명됐으나 사헌부가 매일같이 반대를 하여 곧바로 물러나게 됨. 10/16 실첨지(實僉知)에 임명하고, 당시 모친을 봉양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 광해군이 연명할 수 있도록 우선 그 품계에 준하는 녹을 주라고 함.

1610년(41세, 광해 2년) 2/24 광해군이 침의 허임·김영국 등을 불러 서울 안에 머물게 함. 3/12 전라도 나주의 집에 있음. 올라오도록 전교(傳敎)를 여러 차례 받고도 명을 따르지 않아 사간원이 광해군에게 허임의 국문을 건의했으나 광해군은 따르지 않음. 3/13 허임의 몸에서 전부터 중병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됨.

1612년(43세, 광해 4년) 8/9 서로(西路)에서 남할 때 호종(扈從)했던 공로로 가자(加資) 받음. 9/21 계사년(癸巳年; 1593년) 광해군의 서남행시에 수행하며 침 치료를 한 공로로 3등의 녹훈(錄勳)에 수록됨.

1614년(45세, 광해 6년) 6/11~12 내국(內局)의 의관에 속해 있음. 돈화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입시(入侍)함. 제조들이 모여 여러 번 재촉한 후에야 허임이 느릿느릿 들어왔다며 사간원이 허임을 국문하라고 했으나 광해군이 따르지 않음.

1615년(46세, 광해 7년) 11/28 광해군이 허임을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함.

1616년(47세, 광해 8년) 1/23 영평현령(永平縣令)으로 임명됨. 11/27 여러 해 동안 입시(入侍)하여 침치료를 공로를 인정받아 자급을 더해 받게 됨.

1617년(48세, 광해 9년) 2/12 양주목사에 임명됨. 2/18~21, 25~26 허임이 전출이라는 이유로 사헌부가 왕에게 직위의 교체를 잇달아 간청하였으나 광해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3/9 부평부사(富平府使)로 자리를 바꿈. 6/6 광해군 손에 난 종기가 위중하여 허임과 유대명을 부를 것을 경기감사에게 명을 내림. 6/21 임금에게 침을 놓고 임지로 돌아감 11/10 허임·유대명을 부를 것을 경기감사에게 명을 내림.

1619년(50세, 광해 11년) 11/23 의약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시에 속마(藥馬) 1필을 하사 받음. 12/13 모시고 있던 노모의 병세가 중한 까닭으로 자급을 더해 받음.

1622년(53세, 광해 14년) 4/6 남양부사에 임명됨.

1623년(54세, 광해) 2/19 의관들의 결술한 행위에 대한 광해군의 질책을 받고 물러감. 다른 어의 및 침의들과 더불어 문책을 받고 녹일등(祿一等)을 감봉 당함.

1623년(54세, 인조 원년) 3/26 인조반정 이후 경기감사가 남양부사 허임을 찾아내라고 함.

1628년(59세, 인조 6년) 4/14 침의 허임 등에게 반숙마 1필을 상으로 내림. 10/22 침의 허임 등에게 표피(표범 가죽) 1필을 내림.

1639년(70세, 인조 17년) 8/12 ‘허임의 의술이 지금의 의원보다 뛰어나다’며 임금의 청한(靑汗, 식은땀) 증세에 허임의 침구치료를 받을 것을 의논함. 허임에게 병세를 써가지고 가서 물어보기로 함. 8/18 허임이 임금의 병에 대해 침뜸처방을 문서로 올림.

1641년(72세, 인조 19년) 5/19 장증(脹證)이 심한 재신(宰臣:재상)에게 침을 놓아 효험을 보게 한 공주에 사는 침의(鍼醫) 최우량이 허임에게서 침을 배운 사람이라고 내의원에서 계를 올림.

1644년(75세, 인조 22년) 침구경험방 간행